

2017년판 경제재정백서

- 2017년판 경제백서는 일본경제의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, 완만한 회복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일본경제의 현황 및 과제에 관한 분석과 함께, 노동방식 개혁과 기술혁신이 일본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3개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음
 - 제 1장에서는 일본경제의 최근 동향에 관하여 특히 일손부족의 배경, 개인소비의 본격적인 회복과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동시에, 재정건전화의 진척상황과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금융정책을 개관
 - 제 2장에서는 노동방식 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. 구체적으로는 특히 동일노동·동일임금 등 비정규고용의 처우개선, 장시간 노동의 시정, 유연한 노동방식의 도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개혁이 소비활성화에 이어질 가능성을 분석
 - 제 3장에서는 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과 사회적 적용에 의한 Society5.0 실현이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.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기술혁신과 제4차산업혁명에서 신기술 도입이 기업의 생산성과 국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
제 1장 완만한 회복이 계속되는 일본경제의 현황

- 일본경제는 2012년 11월을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기조가 지속되고 있음
 - 이번 경기회복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3번째로 길 가능성이 있음
 - 노동시장의 수급 팽박 하에 일손부족 상황이 버블기 수준임
 - 물가는 디플레이션상황은 아니나 디플레이션을 탈출하여 물가상승이 예상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

□ 이번 경기회복국면의 특징

- 고용·소득 환경의 개선과 주가안정 등을 배경으로 소비는 완만히 회복되고 있음

- 실업률의 저하 폭은 과거 경기회복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, 명목임금의 증가폭은 이자나기 경기나 버블 경기 때와 비교하면 적음
- 소비자물가와 GDP 디플레이터가 플러스로 반전되고 있어 디플레이션은 아닌 상황임
- 이번 경기회복국면은 설비투자과 민간주택 등 고정자본형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음
- 노동수급의 팽박이 임금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약해지고 있음. 노사의 리스크 회피적인 자세가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

□ 최근 소비동향의 검증과 소비환기 전망

- 스마트폰의 보급과, 독신화 등 세대구조의 변화가 일본의 개인소비구조를 크게 바꿔 놓고 있음
 - 소비지출에서는 주거·전기 등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음. 독신화에 의한 세대수의 증가와 도시부에 사는 인구의 증가가 요인임
- 2014년 이후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저하되고 있음
 - 젊은 층에서는 예상생애소득의 저하와 홀가분한 생활을 추구하는 기호의 변화가 소비 감소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
 - 40-50대에서는 사회보험료 증가 등 공적부담이 세대의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음
- 소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장래의 소득·고용환경에 대한 신뢰감의 회복과 잠재수요의 환기, 주택 등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가계의 구매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함

□ 재정금융정책의 동향

-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에 의해 기업금융이나 주택론 금리가 저하되고 있음.

- 은행 대출은 개인이나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음. 금리의 하락과 2015년의 상속세 개정의 영향으로 특히 임대주택의 착공이 크게 증가함
- 가계의 대차대조표는 자산·부채가 함께 증가하고 있음
 - 자산은 현예금 비율이 높은 수준에 있음
 - 부채는 주택론 외에 소비자금융 등도 증가하고 있음
- 기업은 수익이 회복되어 폭넓은 업종에서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- 중앙정부·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는 2009년도를 바닥으로 개선되고 있음
 - 기초적 재정수지의 2020년도까지 흑자화와 채무잔고/GDP 비율의 안정적인 저하가 중요함
- 버블기 수준의 유효구인배율 등 일손부족감이 높아지고 있음
 - 장기적으로도 일손부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참가율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요구됨
 - 노동방식의 개혁 추진은 일본경제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함

제 2장 노동방식의 변화와 경제·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

□ 노동시장의 과제

- 노동공급의 제약과 노동생산성의 상승둔화가 오래 계속되면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소비나 투자수요가 억제됨. 노동방식의 근본적인 수정은 과제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음
 - 가정 사정 때문에 취업할 수 없는, 취업을 희망하지 않은 사람도 재택취업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방식이 보급되면 취직을 희망하고 실제로 취직할 가능성도 높음

- 정사와 비정사의 급여차이는 축소되었으나, 2016년 시점에서 1.5배임
 - 비정사는 직업훈련 기회가 적고, 인적자본형성이 불리한 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. 비정사의 정사 전환은 제한적임
 - 풀타임 노동자의 1인당 노동시간은 경기후퇴기를 포함해도 큰 변화는 없음.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노동시간보다 10% 길다는 추계도 있음

□ 노동방식 개혁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

-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노동참여 확대에 이어짐
 - 동일노동·동일임금 등 처우개선으로 비정사는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기업도 능력개발을 실시하는 의미가 높아짐
 - 1%의 능력개발비용 증가에 따라 전요소생산성(TFP)은 0.03% 증가함
 - 국제적으로는 노동시간 10% 감소로 노동생산성이 25% 높아지는 관계가 보이고 있음
 - 창설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은 장시간노동 시정과 텔레워크(원격지근무)의 생산성 개선효과가 높음
-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생산성향상을 위해서는 자본장비율의 상승이 중요한데 비제조업은 저하하고 있음
 - 과제를 인식하면서도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. 비정규고용에 대한 처우개선은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시간을 길게 하는 효과도 생각할 수 있음

□ 노동방식 개혁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

- 처우개선과 노동참여의 확대는 저소득자의 소득을 높이고 빈곤율의 개선과 소비촉진으로 이어짐. 최저임금의 인상도 이루어져 직업근로자의 빈곤율이 낮아지고 있음

□ 노동방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

- 텔레워크의 보급 등을 위해서는 ICT화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진전되고 있지 않음
 - 직무범위의 설정 등 어려운 관리도 요구되고 있고, 전직이 불리하지 않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며, 원활한 노동이동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도 높아짐
 - 노동기준감독관 수는 외국보다 적음. 규범을 지키기 위해 감독체제에 충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함
- 인터넷상에서 디지털화된 상품·서비스의 유통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기술혁신이 경제사회의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. 다음 아닌 제 4차 산업혁명임
 - 저출산고령화·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술혁신에 대응할 수 있다면, 일손부족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실현할 수 있음

제 3장 기술혁신에의 대응과 그 영향

□ 기술혁신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

- 일본은 외국에 비하여 일인당 연구개발투자가 적지 않은데도, TFP나 기업수익으로 이어지기 어려움
 - 많은 기업들이 ①신사업보다도 기존 사업의 개선에 주력하고 있고, ②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투자액을 결정하며, ③오픈 이노베이션이 부족한 것이 그 배경임
- 서비스분야에서 ICT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음
 - 서비스업은 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, 중소기업의 비율도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생산체제가 정비되지 않고 있는 점이 경제전체의 생산성향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

- 첨단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고생산성기업의 생산성은 2011년도 이후 부진했던 외에, 고생산성기업과 저생산성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
 - 이노베이션의 견인력이 저하되고,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으로부터 뒤지고 있는 기업으로의 이노베이션 보급도 침체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
- 신규 기술을 도입하면 기업은 생산성 상승률을 높일 수 있음
 - 플러스효과가 큰 순서로는 AI, AoT·빅데이터, 3D프린터, 로봇, 클라우드 등임. 효과가 큰 기술일수록 일본기업에서 도입이 늦어지고 있음

□ 기술혁신이 경제사회·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

- 개인의 니즈에 맞는 상품·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소비할 수 있게 되고 있으며, 그와 같은 상품·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인터넷을 경유한 소비지출이 확대되고 있음
 - 그 일부는 기존 소비의 대체분인데,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는 등 편리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측면도 있음
- 신규기술 도입에 전향적인 기업의 대다수는 노동수요를 높여 수익확대와 고속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증가에 의해 평균임금도 상승함
 -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신규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나가면 노동수요와 임금의 증가로 이어질 것임
 - 다만 노동자의 기능이나 직종에 따라서는 신규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음
- 글로벌화의 이점을 일부 노동자나 특정 업종·규모의 기업만이 아니고 폭넓게 경제주체들이 향수하기 위해서는 성장산업의 진흥과 당해산업으로의 인력이동을 촉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
 - 직업교육훈련 등의 재교육 충실 등 인력투자가 요구됨. 

□ 2017년판 경제재정백서 목차

서

제 1장 완만한 회복이 계속되는 일본경제의 현황

- 제 1절 이번 경기회복국면의 특징
- 제 2절 최근의 소비동향 검증과 소비환기 전망
- 제 3절 재정금융정책 동향
- 제 4절 소결

제 2장 노동방식의 변화와 경제·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

- 제 1절 노동방식 개혁이 요구되는 노동시장의 과제
- 제 2절 노동방식 개혁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
- 제 3절 노동방식 개혁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
- 제 4절 노동방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

제 3장 기술혁신에의 대응과 그 영향

- 제 1절 기술혁신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
- 제 2절 기술혁신이 경제사회·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
- 제 3절 소결

맺음말

<참고자료>

『平成29年度 年次經濟 財政報告』内閣府(내각부), 2017.7.21